

오피니언

光日春秋

안도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의 관절을 움직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다리의 관절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연결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한 발자국을 옮겨 걸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걷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준비 태세를 갖춘다. 누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몸 전체가 걷는 일에 기계이 복무하고자 한다.

달빛과 별빛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따라온다. 바람은 귀밑머리를 간질여 줄 것이며 평은 발바닥을 떠받쳐 줄 것이다. 웅덩이는 웅덩이대로, 돌부리는 돌부리대로 유심히 우리의 걸기를 보살피며 줄 것이다.

걷기의 즐거움

목적지가 없어도 좋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해 보라. 우리의 몸은 막시동을 건 엔진처럼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팔은 발걸음에 맞춰 저절로 흔들릴 것이며, 눈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살살이 탐색하며 나아가갈 곳을 살필 것이며, 귀는 무한히 열리게 되고, 코는 별뜰거리게 될 것이다.

승용차가 별로 없던 시절, 불과 한 이십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 많이 걸었다. 자동차는 걷기의 추억 따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수수발머리에 해 지는 풍경도, 마른 수숫대 위에서 뛰는 방아깨비도 보여주지 않으며, 수숫대가 서로 몸을 비비며 서걱대는 소리도 들려주지 않는다. 사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서 우리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하는 풍경과 소리들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차창 밖으로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다.

들로 넘쳐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걷는 것으로는 모자라 땀박질이 대우행이라든 한다. 건강마라톤 대회는 참가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덕분에 주춤 해갈 일이 없다고 한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술자리를 나가봐도 '걷기 예찬'은 끊이지 않는다.

한쪽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걷고, 또 한쪽은 먹고사는 일에 배가 불러 살을 빼려고 걷는 현실이 나를 참 아득하게 만든다. 남과 북의 경제력의 차이일 뿐이라고, 콧방귀 한번 뀌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자동차가 적으면 당연히 오래 걷기 마

위에 걷는다는 세비를 걸 생각이 없다. 다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걷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내 뱃살이 두꺼워질 때 누군가 꼬르륵거리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게 걷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자의 도리다.

나는 혼자 어슬렁거리며 걷는 시간을 좋아한다. 어슬렁거리며 미세한 데 눈길을 줄 수 있고,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의 뒤편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도 어슬렁거리며 걷는 일로 하루를 다 소비하는 자일 것이다. 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되도록 많이 걷을 것을 주문한다. 그런데 학교 앞 거리에 어느 날 이런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를 신고합니다’ 학교 부근 파출소에서 내걸은 이 현수막의 폭력성 앞에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이유 없이 배회할 자유도 없는 나라라는 말인가? ‘걷기는 말인가?’ 걷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으로의 초대다’라는 멋진 말도 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싶다.

‘걷는다는 것은 나와 대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대화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나주 혁신도시 광주·전남 상생 터전 돼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8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현장에서 첫 삽을 뜬다. 지난 2005년 11월 혁신도시 입지가 나주로 최종 선정된 지 2년 만이다. 나주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도시다.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주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26만4천㎡에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콘셉트로 개발되는 혁신도시는 중앙호수공원을 중심으로 IT 산업과 교통정보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된다.

나주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26만4천㎡에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콘셉트로 개발되는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도시다.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각별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 등 에너지 기능군과 광주의 광산업을 연계하고 농촌공사 등 농생명 기능군과 전남의 농업을 연계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도시다.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주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26만4천㎡에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도시'를 콘셉트로 개발되는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2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도시다. 나주 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의 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 농업 보완대책 미흡하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대비, 농업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동안 20조4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보완대책은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와 경영이양 직불제 등에 12조1천459억원이 투입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6조5천968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압도적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과 가격경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품질을 특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피해 예상규모를 감안해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농민들을 무마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지원규모도 기존의 지원액에 10조 원만 늘린 생색내기라는 것이다.

보완대책에 대한 불만도 크다.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농은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농가등록제와 연계해 고령농을 퇴출시키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농촌 정주여건 조성이나 교육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농민들의 불만을 사줄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

'팍팍식 처방'으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없다. 시장 개방 이후에도 농업과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 문화 등의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간의 역사는 돈의 역사, 즉 화폐사(貨幣史)다. 기원전 25세기 쯤, 바빌로니아에서 원시화폐가 사용됐던 것으로 문헌에 기록돼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화폐는 재질뿐 아니라 가치도 변모해 왔다. 초기에는 금, 은, 동으로 만들어져 '가치 저장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했으나 점차 '지불수단'으로 변모해 왔다.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 중 가장 비싼 고액권은 싱가포르의 1만달러 짜리다. 최근 외환시세에 따르면 싱가포르 1달러가 627원대이니 우리 돈으로 627만 원이다. 일반인도 소지가 가능하나 주로 국가 및 기업간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오는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된 고액권 지폐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도안 인물로 10만 원권은 백범 김구, 5만 원권은 신사임당이 선정됐으며 화폐 디자인 작업에 착수했다. 1만 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던 1973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130배로 커지고 물가도 11배나 올라 더 이상 고액권 발

행은 미룰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막대한 수표발행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액권 발행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뇌물 제공 등 각종 범죄를 부추길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우리 사회 투명성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고액권 발행이 자칫 차떼기나 사과사자를 동원하는 수고를

덜 것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할 정도다.

물론 고액권 발행으로 탈세나 뇌물과 같은 범죄가 실제로 증가할 개연성은 높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한국경제가 양적 규모

와 질적 성숙도에 맞게 인프라를 고치는 국가적 작업의 일환이다. 도안 인물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현금 거래 비중을 낮추는 등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화폐단위가 아니라 반 부패의지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고액권 지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이정록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 나주 공동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단연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물물이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묵사골인 나주 금천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산업 업그레이드

공동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단연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물물이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묵사골인 나주 금천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주 공동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단연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물물이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묵사골인 나주 금천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영산강시대 열어갈 공동혁신도시

되고, 2012년에는 17개 공공기관이 입주하여 약 4만명 정도를 수용할 미래형 혁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공동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미칠 효과는 매우 많다. 17개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연구소·단체들이 혁신도시에 입주하여 지방세수의 증대,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신도시의 관광명소화 등이 그것이다.

공간·산업구조 재편

그러나 공동혁신도시 건설이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의 공간구조와 산업구조를 재편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 지역은 광주대도시권, 광양만권, 영산강 유역권으로 삼분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목표와 광주를 연결하는 영산강 유역권은 남도의 젖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장의 사각지역이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영산강 유역권이 지역의 신성장벨트로 부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전기관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친기업 마인드를 조성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사회운동도 좋은 대안이라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공동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성공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사회의 몫이다. 혁신도시 삽질은 시작됐다. 이제부터는 민관이 협력하여 이전기관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민에게 부과된 숙제다. 남도의 젖줄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단연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물물이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묵사골인 나주 금천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공동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질이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단연 1순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혁신도시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물물이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 묵사골인 나주 금천에 건설될 공동혁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한국에서는 법을 무시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TV를 보면 참 이상한 장면들이 많다. 이해할 수도 없고 신기하기도 하다. 바로 시위대들이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하는 행위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었다. 물론 우리 돈을 들이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짓을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일까. 미국의 경찰력은 '절대적'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 비록 자기에게 잘못이

참 우습지 않은가. 자기나라도 부족해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나라 시민들이 돈을 내며 유지시키고 있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 이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한국 시위대가 홍콩에서 하던 방식대로 이곳에서 시위를 한다면 지금껏 봐온 미국 경찰의 경우 당연히 총기를 사용할 것이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정치 명령을 무시한 채 경찰 쪽으로 차를 급하게 후진하던 한국계

경찰에 힘 실어줘야

없다 하더라도 일단 경찰이 지지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역올함은 나중에 따져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할 정도의 대우를 각오해야 된다.

특히 경찰에 대항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단순히 위협적인 몸짓만 보여도 대개 즉석에서 총탄피해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누구나 무기를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방어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호하고 강력한 경찰력에 대해 미국 시민들도 신뢰와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얼마 전 한국의 시위대가 홍콩까지 가 시위를 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112 전화'에 생활민원·경찰업무 상담까지 해서야

범죄신고시 신속한 출동 및 검거 체제유지를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에 112 통합신고센터를 각 경찰서에는 지령실을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인의 신고는 모두 지방청에서 취함, 각 경찰서와 지구대로 통보된다.

지난 9월 말 광주지방청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전화는 12만9천 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5%의 증가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50.3%가 생활민원이나 허위·장난전화로 범죄발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드러나 긴급사건에 대한 대응력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

“빨리 오니까 112로 신고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생활민원 신고자들은 자신의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

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른다.

특히 비범죄성 신고전화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범인검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필요한 112신고를 자제한다면 그 혜택은 자신의 자녀 또는 이웃에게 돌아간다.

도로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듯 112 신고도 긴급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협력 치안의 지름길이다.

생활민원이나 경찰업무 관련 상담은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 1566-0112번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생활민원 신고자들은 자신의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도움이 필

▲나승호·광주 서부경찰서 농성지구대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부 2200-619 총 부 2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월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